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10.(월) 06:00 < 3.10.(월) 석간 > 배포 2025. 3. 7.(금)

한-영국 자유무역협정(FTA) 4차 개선협상 개최

- 3.10(월) ~ 14(금), 영국 런던
- 서비스, 공급망, 디지털, 바이오경제 13개 분야 협상 -

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3.10(월)~14(금)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(Adam Fenn)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.

한·영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(Brexit) 이후 한-EU FTA 수준의 한-영 FTA를 타결('19년 서명, '21년 발효)하였고, 이후 양국 간 교역·투자·경제협력 관계 심화, 무역과 성평등·디지털무역·바이오경제 등 신통상분야 신규·개선규범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해 왔다.

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상품협정문, 공급망, 디지털무역, 정부조달, 바이오경제 등 13개 분과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하여 한-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.

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"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의 교역·투자 확대 및 신규 유망분야에서 기업간 협력강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"라고 강조하며 "한-영 FTA 개선협상에서 기업친화적인 원산지 기준 개선, 바이오·공급망 협력 및 디지털 규범 마련 등에 주력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	책임자	과장	임국현 (044-203-58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3-58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